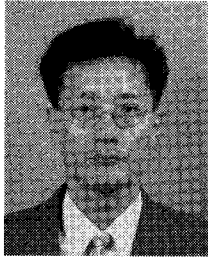




## 포장기계업계



오 선 진

(사)한국포장협회 편집실장

포장기계산업은 여타 산업기계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일반 산업기계가 주변 경제의 영향을 그대로 흡수하는 반면 포장기계는 소비자의 기호변화, 생산속도, 자동화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불황 속에서도 약진을 하는가 하면 호황 때 고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포장기계는 신제품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흥망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례로 지난 IMF체제 하에 최대의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포장기계업계가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수출을 늘려왔던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우리 업계는 밀려드는 선진 자본과 기술에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수출선 확보가 필수라 예견했던 것이 수년전의 일로 이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해왔던 기업들은 불황이라는 어려움을 모르고 지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수에서 안주하고 자리만 지키던 업체들은 도태되거나 휴·폐업하는 사태로 치달아 안타까움만 더 할 뿐 타개책 마련이 어려웠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체들이 일회성 판매의 저가경쟁으로 기술력이 퇴보하고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후진기업의 병폐가 되살아나 성실한 업체에까지 피해를 주기도 했다.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어도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가경쟁을 유도했던 업체의 도태는 당연한 것이며 아울러 업계 전체를 어렵게 하고 기술개발마저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물지각한 상거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저들도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현상까지 발생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만연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누비고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도 불황을 모르는 업체들이 있는 것을 보면 기계업체들 자신이 무덤을 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업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전문적인 분야만을 고집하고 기술개발을 이룬다면 늦지만

## 포장기계업계

은 많았다고 생각된다. 기술능력에서 떨어지지 않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국들보다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는 저력이 우리에게는 내재되어 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한정된 내수가 아니라 세계시장이다. 자본과 기술력을 무기로 밀려드는 외국 포장기계업체들에게 대응하려면 세계적인 기술력과 그에 맞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동안 내수시장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라왔던 것과는 상황이 너무 거칠게 변하고 있다.

망망대해에 내 던져진 것처럼 이제 살길은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할 때라 생각된다. 서로 협력하고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자세가 된다면 고생해서 만든 기계를 제 값 받고 파는 보람 있는 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 사회는 인터넷 시대를 지나고 있다. 이 시대를 지나면 또 다른 시대가 올 것이다. 미래에 대한 대비가 어렵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동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실 우리 포장기계 업체들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를 꼽으라면 얼마나 될까?

또한 3차원의 새로운 전자메카트로닉스를 이용한 기계제작이 수년 전부터 진행되었는데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 포장기계 업체의 미래는 밝은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낙관론을 보이는 것은 시장질서를 재편하고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를 통해 후발업체들도 분발하고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기술력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진 우리 민족이 못해낼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포장기계 업계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욕심보다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며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으로 무한경쟁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개혁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우리 포장기계업체도 그동안 이루어졌던 주변의 일들부터 반성하고 바꾸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주변 경제가 어떻든 우리 포장기계 업체는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21세기를 맞이하는 올해가 포장기계 업체로서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할 것으로 기대돼 다시 상승곡선을 이어갈 것이 틀림없다. ☐